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광주 1/10℃ 목포 3/10℃ 여수 3/1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3월 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48호 1판 2010년 4월 14일 수요일

"자연의 소중함 배워요" 13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에서 열린 '2010 체험환경교육' 행사에 참가한 문흥초교 학생 30명이 생태해설사로부터 광주호 주변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북구청이 주관하는 이번 체험환경교육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30주년 '정치행사' 우려

행사위 "일부 시국 연계"속 지방선거·노무현 1주기 등 맞물려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에서 치러질 5·18 행사 중 일부가 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순수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애초 5월 항쟁의 의미·상징성·역사성을 부각시켜 전국적인 추모 행사 위주로 짜여 졌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23)와 6·2지방선거, 금호타이어 노사 문제 등 시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자칫 5·18 행사 일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5·18 기념행사가 반민주·독재에 맞서 싸운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행사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정신계승사업 위주로 흐름이 바뀌었지만, 올 30주년 행사는 지방선거 등 정치 이벤트와 지역 현안까지 맞물려 자칫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2일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0주년 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국제·타 지역연대 등 10개 분야 40여 개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30주년 행사위가 일부 행사를 시국 관련 내용을 담아 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갈등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15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릴 '2010 민주대성회'에서는 각종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선언문과 시민·학생·각 단체의 입장 표명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17일 열릴 전야제와 오월 대학생 한마당 행사도 광우병·친일 인명사전 피켓 전시회 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구청장 등 각 정당 후보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선거 유세장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주년 행사위 최정진 사무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민주대성회에서는 시국 관련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 행사에 앞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 것인지 미리 검열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5·18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이유든 5월 정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당, 광주·전남 망쳐놨다

경선 관리능력 상실…재심 청구·검찰 수사·당사 점거 등 최악 후유증

민주당의 부실한 경선 관리가 지역 정치권의 반목과 민심 분열 등 극심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풍(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고소·고발전과 불복 사태 등 민주당의 진흙탕 경선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주승용, 이석형 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후보 등록을 미뤄오던 중 민주당이 단독으로 등록했던 박준영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자, 상대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전남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대한 재의 요구서와 재심 신청서를, 재심위원회에는 재심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특히 이들 후보의 지지자 70여 명은 13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도당을 점거해 사실상 경선 업무가 마비됨으로써 경선 일정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30여 곳, 다음주 80여 곳의 경선 업무를 추진해야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최해야 할 경선 설명회도 인근 예식장 건물로 옮겨 개최해야 할 판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강운태 후보에게 패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중앙당은 지난 12일부터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도 13일 중앙당이 수사의뢰한 '불법 의혹 ARS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 공천심사정의 잡음과 파행은 민주당의 선거관리능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가 되는 것조차도 가능성이 희박했던 노무현 후보를 광주시민이 선택했고, 노 후보는 그 여세를 몰아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즐거움을 만끽했던 '축제의 경선'을 맛본 광주시민으로서는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 실망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성숙한 시민·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광주에만 유독 시민공천배심원제도라는 경선 방법을 도입하고, 전남에는 또 말썽 많았던 체육관 경선을 일부 도입하는 등 원칙 없는 경선방법과 관리가 '경선 후유증'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미경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지사 경선이 무산돼 당 입장에서 아쉽고, 지지자도 서운하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원칙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며 "후보 등록을 해 놓고 경선 룰을 협의할 수 있는데도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가등록 권유도 했으며, 한번 연기했는데도 등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재성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도 "대전시장·전북지사·전남지사 경선 모두 일부 후보의 등록 포기로 단수 후보가 된 지역인데 전남에서만 농성 등 반발이 있다"며 "모두 지도부가 원칙대로 한 것이고 특별히 전남에 매몰차게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함미 16~17일 인양 가능"

내일 작업 개시…軍 "유실된 무기 폭발 염려 없다"

백령도 연안 수심이 낮은 곳으로 옮겨진 천안함 함미 부분을 인양하는 작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과 민간 인양업체는 기상악화로 중지된 인양작업이 기상이 다소 나아지는 15일께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해군 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세 번째 인양색(체인)이 언제 설치되느냐에 따라 함미 인양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며 "내일 야간부터 기상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조건이 좋아 15일 세번째 인양색 설치가 가능하다면 16~17일에는 인양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함미 인양작업을 맡은 88수중개발 관계자들도 기상만 호전되면 15일께 함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양준비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합참은 물 위로 드러났던 함미 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어떤 무기가 유실됐는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무기가 유실됐는지는 선체를 인양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무기가 유실됐다고 해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폭발할 염려는 없다"며 "기뢰탐색제거함 등을 동원해 사고 해상을 정밀 탐색해 유실된 무기를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나갈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3탄
김성희 홍익대 부교수 '북경 따산즈 798지역 예술시장'
※ 선착순 100명·무료
16일(金)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